

<水文氣象 심포지움>

水文氣象 심포지움 概況

高 在 雄*

本學會와 韓國氣象學會 共同主催이며 產學協同財團과 峨山財團의 後援으로 처음 가지게 된 “水文氣象科學發展에 관한 심포지움”이 지난 7月 5日 14 시 부터 汝矣島에 있는 全國經濟人연합회 会館 3層 會議室에서 열렸다. 200名에 달하는 兩學會 會員들이 참석한 가운데 本學會 編輯理事 姜道沅教授의 司会로 먼저 開會式을 가졌다.

成佐慶 科技處長官의 激勵辭가 있었고 뒤이어 本學會 崔榮博會長의 全世界 모든 國家들이 共同課題로 水文技術에 대한 綜合의이고 未來指向의인 對策의 創出로서 全人類와 社會의 繁榮에 參与하자는 基調演說이 있었다.

이어 韓國氣象學會 盧在植會長은 各水系 流域別 및 全國土에 대한 降水量測定值의 統計分析, 評估技術 및 한국에서의 可用물 資源에 대한 推定技術의 開發에 最大限의 努力を 기울여 보다 깨끗하고 充分한 各種用水를 적시에 확보 공급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基調演說에서 지적하였다.

심포지움은 第 1 部에서 “水文氣象 科學 技術開發”이 主題로서 여기서 세개의 論題가 선정되어 發表와 討論이 있었으며 第 2 部에서는 “水資源政策方向”으로 政策的인 課題와 對策에 대한 세개의 論題를 다루었다. 第 3 部에서는 이들 主題와 討論에 대한 綜合討議를 다루는 内容으로 進行되었다.

本 심포지움에서는 水文 氣象 分野의 學界 研究所 등에서 研究에 종사하는 專門家 뿐 아니라 政府機關이나 企業體등 그리고 用役業體등의 水資源開發과 관련되는 業務에 종사하는 많은 會員들이 瞩心을 가지고 參席하였으며 진지하고도 열기애 찬 분위기 속에서 6時半까지 계속되었다.

심포지움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記念칵테일이 会

議室 옆에 붙은 훌에서 마련되어 미진한 討議 討論이 이 자리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처음 가진 兩學會의 共同 심포지움이 成功의으로 끝났음에 모두 만족해 하면서 兩學會의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모임이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하여 계속되고 發展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들 한결 같았으며 이 자리를 빌어 物心兩面으로 後援을 아끼지 않은 產學協同財團과 峨山財團 關係者들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發表主題與 座長, 討論者構成

第 1 部 水文氣象科學技術開發

第 1 論題 : 우리나라 水文分野技術開發에 關한 研究

發表者 : 尹龍男(陸士教授) 座長 : 李元煥(延世大 教授)

討論者 : 崔贊植(建設部 水資源局 理水課長) 高在雄
(建國大 副教授) 金桂鑄(產基公 忠州댐 所長)

第 2 論題 : 우리나라 氣象分野 技術開發에 關한 研究

發表者 : 鄭昌熙(서울大 教授) 座長 : 尹亨珍(氣象研究所 所長) 金聖三(서울大 教授) 尹泰勲(漢陽大 副教授) 韓英鑄(釜山水產大 教授)

第 3 論題 : 降雨量 資料의 適正化에 關한 研究

發表者 : 洪性吉(氣象研究所 研究官) 座長 : 李承萬
(延世大 教授)

討論者 : 金勝義(釜山大 教授) 李光浩(全北大 教授)
曹喜九(延世大 教授)

第 2 部 水資源政策方向

第 4 論題 : 물의 問題와 開發에 關한 研究

發表者 : 金榮煥(建設部 水資源局 開發課長) 座長 :

< 22 頁이자로 제속 >

* 本學會 編輯理事(委員長) 建國大學校 工科大學 副教授 技術士